

‘給’의 다중 문법화

박 향 란*

<目次>

I. 서론	3. 處置표지와 피동표지
II. ‘給’의 다중 문법화 과정	III. ‘給’의 의미 지도 모형
1. 여격표지와 수혜표지	IV. 인접 방언과의 비교
2. 목표표지와 사역표지	V. 결론

I. 서론

현대 중국어의 ‘給’는 문장에서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쓰인다. 특히 ‘給’는 NP1-給-NP2-VP 구조에서 여격표지(dative marker), 수혜표지(beneficiary marker), 목표표지(purposive marker), 사역표지(causative marker), 處置표지(disposal marker), 피동표지(passive marker)로 쓰이는데 이는 ‘給’가 ‘주다’의 의미의 동사에서 문법화 된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여러 기능 표지로의 발전은 다중 문법화(poly-grammaticalization)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¹⁾

다중 문법화라는 용어는 Craig(1991)의 논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데 하나의 문법 형태가 하나 이상의 문법화 연쇄를 형성하면서 단선적이 아니라 복선 구조를 띄며 발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문법화에서 동일한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과 강사

1) 목표표지와 사역표지는 문장에서 여전히 동사로 쓰인다. 이는 ‘給’의 문법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給’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표지(marker)라는 명칭으로 모두 통일한다.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 기능적으로 나누어지는 분화(Divergence)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분화는 공시적 측면을 중시하고 다중 문법화는 통시적 측면을 강조한다.

본고는 明清代문헌을 중심으로 ‘給’의 여러 용법에 대한 공시적 분석과 더불어 변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明清시대 북방지역 작품인 《金瓶梅》, 《醒世因緣傳》, 《紅樓夢》, 《兒女英雄傳》 등의 근대 중국어의 자료 분석을 통해 ‘給’의 여러 기능표지들로의 문법화 경로를 추적하고, 의미 분화 과정을 분석해본다. 이 단계에서 재분석과 의미 약화 등의 문법화 기제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의미 분화 과정을 의미 지도 모형(semantic map model)을 통해 나타낸다. 이 밖에 閩南語와 廣東語, 客家語 등 인접 방언의 ‘주다’의미동사의 문법화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給’의 문법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給’의 다중 문법화 과정

李焱(1999)의 연구에 따르면 ‘給’는 만당오대시기에 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송원명대를 지나 청대에 많이 출현하기 시작한다.²⁾ 하지만 명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給’의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給’가 문중에 출현하는 형식도 매우 제한적이다.

- (1) 若復生子, 當給於汝. (《祖堂集·卷1》)
(만약 다시 자식을 낳으면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 (2) 夫既給之以百畝之田矣, 又給之以學糧. (《朱子語類·卷84》)
(이미 그에게 백묘의 땅을 주고 다시 수업비를 주었다.)

2) ‘給’의 來源에 대해서 張惠英(1989)는 ‘給’가 ‘乞’를 계승했다고 보고, 志村良治(1995/2005)는 ‘給’가 ‘饋’에서 발전되었다고 보지만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令民間上上之戶，赴倉上米，討倉鈔，派給鹽引支鹽。(《金瓶梅·第48回》)

(민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을 바치고 대신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받게 되는데 쪽지에 따라 소금표가 배당된다고 합니다.)

(4) 量追燒埋錢十兩給與馮二，相應發落。(《金瓶梅·第67回》)

(장례비조로 풍이에게 은자 열 냥을 주게 하여 맞게 처리 하였습니다.)

위의 예문처럼 ‘給’는 대부분 동사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동사와 함께 ‘V給’이나 ‘給V’형태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給’가 전형적인 수여 동사로 이중 목적어 구문에 쓰이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給’가 여러 기능 표지들로 문법화 될 수 있는 문법 환경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말 청초의 작품인 《醒世姻緣傳》에 들어와서 ‘給’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한 다양한 문법 환경에서 출현한다. 예를 들어 (a) NP-V-NP2-給-NP1, (b) NP-給-NP1-NP2와 같은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많이 나타난다.³⁾ 이는 NP1-給-NP2-VP 구조를 생성하여 여러 기능표지들이 발전할 수 있는 문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 결과 현대 중국어 ‘給’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명말 청초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고 청대 말에 이르러 ‘給’의 기능표지들의 문법화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명말청초의 작품인 《醒世姻緣傳》에서 ‘給’는 여격표지, 수혜표지, 목표표지, 사역표지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동표지와 處置표지로 쓰이는 예문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후대 작품인 《紅樓夢》과 《兒女英雄傳》에 가서야 출현하기 시작한다.⁴⁾ 결국 역사적 선후관계와 의미 관계를 추론해보면, 앞의 네 용법이 먼저 생겨난 후에 뒤의 두 용

3) 여기서 NP1은 ‘給’의 간접 목적어를 나타내고, NP2는 직접 목적어를 나타낸다. 다만 (a)유형은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앞에 오고, (b)유형은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뒤에 출현한다. 만약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타나고,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給’를 쓴다.

4) 박향란(2011a,b) 참조.

법이 생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醒世姻緣傳》을 시작으로 《紅樓夢》과 《兒女英雄傳》에 나오는 ‘給’의 용법을 분석하여 각 표지들의 문법화 경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통시적 의미 변화과정을 서술한다.

1. 여격표지와 수혜표지

많은 학자들은 NP-V-NP2-給-NP1 구조와 같이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의 간접 목적어가 후치되었을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들어가는 ‘給’를 간접목적어 표지 혹은 여격표지로 보는 경향이 있다.⁵⁾ 왜냐하면 ‘給’뒤에 어떤 상표지도 붙일 수 없고, 특히 ‘주다’의미를 가진 많은 동사 중에 유독 ‘給’만이 간접목적어를 대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Chu-ren huang and Kathleen ahrens(1996)은 위와 같은 구조에 쓰이는 ‘給’를 여전히 여격표지보다는 ‘주다’의미의 동사로 보며, 따라서 이런 구조를 연동문으로 분석한다.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에서 동사는 대부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물건의 전달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여격표지는 수혜표지와 마찬가지로 NP1-給-NP2-VP 구조로 본다. 수혜표지와 여격표지는 표면의 통사구조가 같고, ‘給’뒷면의 NP2는 의미상 모두 VP의 접수 대상이고, VP가 지칭하는 행위는 모두 NP1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여격용법에 쓰이는 술어동사는 본래 ‘주다’의미가 내포되어있고, 수혜용법에 쓰이는 술어동사는 본래 ‘주다’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혜용법으로 쓰일 때는 NP1이 NP2를 위해 VP에 해당되는 모종의 행위를 하며, ‘爲(위하여), 替

5) Li & Thamson(1989)는 현대 중국어에서 수혜 표지로 쓰이는 ‘給’는 술어동사 앞에 오고, 간접 빈어 즉 여격표지로 쓰이는 ‘給’는 술어동사 뒤에 오지만 후대에 갈수록 ‘給’으로 표시되는 간접 빈어가 앞으로 옮겨지면서 이 둘이 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사 앞에서 여격표지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인데 ‘寫, 買, 留, 打(電話), 送, 加’와 같은 몇몇 동사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대신하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 여러 언어에서는 수혜표지의 문법화에 대해 크게 ‘주다’의미의 동사에서 직접 파생되었다는 견해(Song 1997, Newman 1993, K.thepkanjana, S.uehara 2008)와 여격표지에서 발전되었다는 견해가 있다(Yap & Iwasaki 2000). ‘給’의 수혜표지로서의 문법화는 ‘주다’의미의 동사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醒世姻緣傳》에는 이중 목적어 구문 뒤에 또 다른 하나의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 ‘給’은 수혜표지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다.

- (5) 看這孩子爽爽利利的, 一定也不溺床, 我另給他做被子蓋。(《醒世姻緣傳·第42回》)
 (이 아이는 깔끔해서 분명 오줌 싸지 않을 꺼야, 내가 별도로 그에게 이부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 (6) 快把輸的銀子送來給我置辦東道, 吃了好往府裏考。(《醒世姻緣傳·第42回》)
 (빨리 도박에서 잃은 은자를 가져와서 나에게 한턱내, 먹고 나서 관아에 가서 고하여라.)
- (7) 所以哄他叫寫個稟帖給我做了憑據, 叫他改不得口。(《醒世姻緣傳·第50回》)
 (그를 달래어 편지를 쓰게 하여 내가 증거로 삼게 하라, 그가 말을 바꾸지 않게.)
- (8) 這是山東狄爺, 是吏部候選府經歷, 央你寫張訴狀, 你用心給他寫寫, 不可潦草了。(《醒世姻緣傳·第81回》)
 (이 사람은 산동의狄爺로 吏部の 候選府經歷로써 너에게 소장을 쓰게 하니, 너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써줘야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의 예문들은 수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주다’의미의 동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각 예문에서 ‘給’의 대상은 ‘被子蓋’, ‘銀子’, ‘稟帖’, ‘訴狀’ 등 구체적인 사물로 구성되며,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NP2에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예문(7)의 ‘稟帖’은 쓰여 지는 대상이 되고, 이것이 다시 NP2에게

전달되는 대상이 된다. 주는 행위는 한 영역에 있던 사물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피전달자에게는 없는 것을 새로 받게 되므로 수혜 또는 혜택의 의미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주는 행위가 먼저 있고 나서야 뒤의 수혜 사건의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혜용법으로 쓰이는 ‘給’은 ‘주다’의미 동사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수혜 용법에 쓰이는 ‘給’ 뒤에 오는 동사는 대부분 행위성이 강한 동사로 구성된다.

- (9) 你把那面小菱花的給我留下罷。(《紅樓夢·第57回》)
 (너는 그 꽃그림이 그려진 것을 내게 남겨놓아라.)
- (10) 你就把這書給我拿出來。(《紅樓夢·第48回》)
 (너는 그 편지를 나에게 가져오라!)
- (11) 才剛太太打發人給我送了兩碗菜來。(《紅樓夢·第35回》)
 (방금 마나님이 사람을 보내 나에게 두 접시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문(9~10)과 같은 경우는 ‘給’은 ‘주다’의미를 갖는 동사로 볼 수도 있고, 수혜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문(11)과 같은 경우는 ‘人’이 ‘給’의 대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수혜의 의미만 남는다.

《紅樓夢》에는 행위성이 강한 동사이외에 의사전달동사도 많이 출현한다.

- (12) 先去給我把興兒那個忘八崽子叫了來。(《紅樓夢·第67回》)
 (너는 먼저 나에게 흥兒 그 자식을 불러오라!)
- (13) 我想起來，他還沒個名字，你就給他起個名字。(《紅樓夢·第13回》)
 (생각이 났다. 그가 아직 이름이 없으니, 네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라.)
- (14) 那門上的家人早把報條接了進來，給老爺、太太、公子叩喜。(《兒女英雄傳·第1回》)
 (그 가족들이 과거시험에 붙었다는 통지서를 가져와서 할아버지와 아

버지, 공자에게 축하인사를 드렸다.)

예문(12)에 나오는 동사 ‘따’는 행위성이 약한 의사전달동사이다. 그러므로 NP2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처럼 전달체가 구체적인 사물의 전달이 아닐 경우에 수혜 의미가 약화되고 단지 전달의 방향과 도달의 의미가 강화된다. 또한 ‘把’가 이끄는 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給’뒤에 출현한다. 이는 ‘給’가 이미 동사적 성질을 상실하고 표지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수혜표지로 쓰이는 ‘給’는 ‘주다’의미 동사에서 직접 파생되었고, 여격표지는 수혜의미에서 도달의 의미 즉 방향성이 증가되면서 발전되었다고 본다. 즉 수혜표지로 쓰이는 ‘給’뒤의 동사로 의사전달 동사나 추상동사가 오면서 ‘給’의 ‘주다’의미가 약화되면서 여격표지로 발전하게 된다.

2. 목표표지와 사역표지⁶⁾

‘給’가 쓰이는 이중 목적어 구문 뒤에 다른 하나의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 수혜표지나 여격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給’는 목표 표지 혹은 연결표지로 변화된다.

먼저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15) a. 晁夫人摩弄著他, 哄他吃飯, 又給他果子吃。(《醒世姻緣傳·第36回》)

(晁夫인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달래어 밥을 먹게 하고,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b. 怎麼拿著主人家的貴米, 多多的做下粥, 給不相幹的人吃?(《醒世

6) 박향란(2011)는 ‘給’字 사동문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역표지의 변천 과정을 몇 단계로 설정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역표지 전 단계로 ‘목표표지’로 재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姻緣傳·第55回》)

(어떻게 주인의 귀한 쌀을 가지고 죽을 쑤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먹이느냐?)

c. 千萬別給老太太, 太太知道。(《紅樓夢·第52回》)

(절대로 노마님과 마님이 알게 하지마라.)

(15-a)는 NP-給-NP-NP-V구조로 이중목적어 구문 뒤에 동사가 합쳐진 유형이다. 예문에서 ‘果子’는 ‘給’의 직접 목적어가 되면서 또한 의미상 ‘吃’의 목적어가 된다. (15-b)는 NP-V-NP-給-NP-V 구조로 뒤의 사동행위의 발생을 목적으로 앞면에 사동주의 구체적인 동작의 방법을 묘사하였다. 의미상 이를 목표 표지로 볼 수 있다.⁷⁾예문을 해석해보면 주인의 쌀을 가지고 와서 죽을 쑤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하는 것으로 ‘吃’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粥’이 앞면에 출현한다. 여기서 주어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간접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들 문장은 수혜표지의 생성과정과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吃, 穿’의 행위는 피사동주(NP2)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주어가 간접 목적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들 NP-V1-NP-給-NP-V2 구조에서 V의 동작 주체에 따라 수혜표지로 혹은 목표표지로 달라질 수 있다. 즉 V2의 주체가 ‘給’뒤의 NP가 되는 경우는 목표표지로 변화되고, 전체 문장의 주어가 V2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수혜표지로 변한다.

특히 ‘給’字 겹어문에 쓰이는 동사는 ‘吃, 喝, 穿’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⁸⁾ 이런 동사는 모두 사물을 몸이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동사의

7) 본고에서 말하는 목표 표지에 대해서 Hui-ling lai(2001)는 일종의 complementizer 즉 보문표지라고 보았고, Hilary chapell & Alain peyraube(2006)는 causative complementizer라고 보았다. 반면 Cheng lisa & James huang(1999)은 이런 구조를 연동 구조로 보았다. 종합하자면 이런 용법에 쓰이는 ‘給’은 여전히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사동의미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주어는 행위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인 수동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給’字 구문에서 수여 의미와 목적성 행위, 그리고 사동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후에 NP-(V-NP)-給-NP-V구조처럼 사동주의 동작의 방식이나 방법이 생략되면서 재분석(reanalysis)의 기제를 통해 전형적인 (15-c)사동 구조가 발전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청대 중기작품인 《紅樓夢》이나 《兒女英雄傳》에 이르면 구체적인 사물처럼 주고받을 수 없는 동사, 예를 들면 ‘看’, ‘知道’, ‘見’, ‘聽’ 등과 같은 동사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6) 我就寫了幾首給他們看看, 誰不是真心歎服。(《紅樓夢·第48回》)
 (나는 시를 몇 수 써서 그들에게 보게 했다. 누가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겠는가?)
- (17) 姑娘少坐, 等我請個人來給你見見。(《兒女英雄傳·第7回》)
 (아가씨는 잠시 앉아계세요. 제가 사람을 데려와서 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看’, ‘知道’, ‘見’, ‘聽’ 등의 인지동사가 출현하고 여기서 ‘給’뒤의 NP는 경험자(experiencer)의 역할을 한다. 예문(16)에서 시를 몇 수 써서 그에게 주었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시’는 직접 건네주는 대상일 수도 있고, 직접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예문(17)을 보면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給’는 실제 ‘주다’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8) 박미정(2001:387)역시 현대 중국어에서 직접 사동을 표현하는 ‘給’字 구문은 쓰이는 동사가 穿(衣服/鞋), 披(衣服), 戴(帽子), 系(腰帶), 打(領帶), 理(髮), 剪(頭), 洗(澡, 頭, 臉), 脫(衣服, 鞋)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Shibatani & Pardeshi(2002) 역시 이런 사동문을 구성하는 동사를 흡수(ingestive)동사라고 명명하였다. 즉 seeing, knowing, learning 등과 같이 지식의 흡수를 나타내는 동사나, 먹고 마시는 동사, 혹은 going up, sitting down, shaving, dressing, put on the clothes, eat, washing one's hands, combing one's hair 등과 같은 재귀동사들이 해당된다.

즉 예문(16)는 ‘幾首’는 수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個人’은 주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동사가 달라짐으로써 ‘주다’의미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변했다가 사동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요약하면 ‘주다’의미동사와 목표표지와 사동표지는 서로 관련이 있다. 의미적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물의 주는 행위를 통해 뒤 사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서 목표의미가 생겨나고, 동작의 방식과 목표를 연결하는 표지로 변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 쓰이는 특수한 동사의 성질로 인해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통사적으로 볼 때 NP-V-NP-給-NP-V구조가 목표표지가 되고, 재분석을 통해 ‘給’ 앞의 V-NP가 생략되면서 NP-給-NP-V구의 사동구조가 생성된다.⁹⁾

3. 處置표지와 피동표지

處置표지와 피동표지로 쓰이는 ‘給’는 청대말기에 생겨났으며, 이들은 앞의 여러 표지들의 문법화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 왜냐하면 處置표지와 피동표지는 ‘주다’의미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處置표지로 쓰이는 ‘給’는 ‘주다’동사로 쓰이는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바로 處置표지로 발전되었다기보다는 ‘給’의 다른 용법들의 과도기 단계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이 때문에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9) Newman(1993)은 ‘주다’의미동사가 사동을 나타내는 것은 소유물에 대한 통제가 사건에 대한 통제로 의미적 확장을 거쳤다고 보았다. 즉 주어가 사건 발생의 권위를 가짐으로써 허가나 허용의미를 통해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NP1-給-NP2-NP3의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뒤의 직접 목적어가 사건을 나타내는 VP로 대체되면서 사역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의 예문(16~17)을 보면 주어의 의지가 피사동주의 의지보다 더 크게 보여 허용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목표표지에서 사역표지로의 발전을 주장한다.

10) 石毓智(2006)는 被動과 處置를 표현하는 ‘給’의 來源에 대해서 이중 목적어 구문의 동사에서 바로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紅樓夢》 등에는

‘給’가 수혜표지나 사역동사에서 발전되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수혜표지나 사역동사로 쓰이는 ‘給’는 모두 ‘NP-給-NP-VP’ 구조에 나타나며 處置용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혜용법과 사동용법이 먼저 있고 나서 處置용법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문헌 자료의 근거역시 충분하다. 다만 이에 대해 王健(2004)은 수혜용법과 사동용법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본 반면 Chappell(2006)은 북방 중국어의 ‘給’나 ‘幫’ 등의 동사는 수혜표지를 거쳐 處置표지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紅樓夢》, 《兒女英雄傳》 등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給’뒤의 성분은 대부분 사물로 충당되며, 동사 뒤에 주로 장소 목적어를 동반하여 ‘給’뒤에 나오는 대상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킴을 나타낸다.

- (18) 你帶了去, 給毬兒放在屋裏, 看你那沒臉的公公還要不要了。(《紅樓夢·第46回》)
 (네가 데려 가서 毬兒을 방안에 두어라, 그 뻔뻔한 시아버지가 원하는 지 아닌지 봐라!)
- (19) 十三妹道: “那還倒他作甚麼呀? 給他放在盆架兒上罷。”(《兒女英雄傳·第9回》)
 (十三妹가 말하길 세면대야를 버려서 뭐하려고? 대야를 세면대 받침에 올려놓아라.)
- (20) 老爺待要不接, 又怕給他掉在地下, 惹出事來, 心裏一陣忙亂, 就接過來了。(《兒女英雄傳·第38回》)
 (老爺가 막 잡지 않으려 했으나, 꽃이 땅에 떨어져,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다시 잡았다.)

(S)-給-NP1-NP2-VP처럼 ‘주다’의미를 나타내는 ‘給’가 이중 목적어 구문에 출현하면서 뒤에 다른 동사가 출현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즉 (S)-給-NP1-NP2-VP구조에서 NP2가 생략되면 피동문(S)-給-NP1-VP이 되고, NP1이 생략되면 處置문(S)-給-NP2-VP으로 변한다. 하지만 ‘給’의 초기 處置용법을 살펴보면 이들 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박향란(2011b) 참조.

위의 예문의 處置용법들은 受惠용법과의 관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受惠과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字 구문에서 NP1은 모두 의도를 가지고 受惠행위 또는 處置행위를 일으킨다. 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 受惠표지로 쓰이는 ‘給’뒤의 NP는 도움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處置표지로 쓰이는 ‘給’뒤의 NP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각 용법에서 ‘給’뒷면의 NP의 역할이 다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 용법에서의 ‘給’뒤의 NP 성분은 주어의 행위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받을 뿐 직접적으로 상태 변화를 겪지 않는다.

따라서 남은 하나의 가능성은 ‘NP-給-NP-VP’의 사역 구조를 들 수 있다. 사역구조에서 ‘給’는 사역·허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給’뒤의 NP 성분은 동작 행위의 행위자 혹은 當事者가 된다. 만약 사역용법에서 ‘給’뒤의 NP성분이 피 사동 사건에 의해 통제성이 약화될 때 ‘給’ 뒷면의 NP는 사건의 영향을 받는 수동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處置용법으로 변하게 될 여지가 있다. 즉 ‘給’ 뒷면의 NP의 피사동주의 행위성 혹은 통제성이 약화되고 영향성은 증가하면서 NP가 사물로 충당될 수 있으며 상태를 나타내는 致使용법과 의미적으로 연결된다.

‘給’는 현대 중국어에서 피동표지로도 쓰인다. 그러나 피동표지와 處置표지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의미상으로 處置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고, 피동은 주어가 어떤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이 둘은 의미상 서로 정반대로 보인다.

이에 대해 徐丹(1992), Newman(1993), 江藍生(2000), 蔣紹愚(2002), 洪波·趙茗(2005) 등은 사역용법에서 피동용법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李宇明·陳前瑞(2005)는 피동표지 ‘給’는 ‘教/叫-NP-給-V’, ‘被-NP-給-V’의 복합 피동문에서 ‘給’가 피동어기를 강화시키는 助詞로 중복 사용되면서 유추(analogy)를 통해 점차 ‘給’가 독립적으로 피동표지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李煒(2002)는 북방 방언에서 ‘給’가 사동을 나타내는 수량이 매우 적었으며, 피동을 나타내는 ‘給-VP’구조가 ‘給-NP-VP’구조보다 먼저 출현한 것을 볼 때, 북방 방언의 피동 표지 ‘給’는

사역동사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남방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木村英樹(2005)는 ‘給’의 피동표지는 수혜표지에서 직접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의미적으로 수혜표지에서 ‘給’뒤의 NP는 사건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며, 사건 발생의 동인은 결국 행위자의 작용과 비슷하여 피동표지로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李宇明·陳前瑞(2005)의 복합 피동문의 유추에 의한 견해는 문헌 자료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원래 있던 성분이 생략되면서 재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부분이 유추에 의해 생긴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給’뒤의 NP성분이 출현하지만 의미 성질의 변화로 인해 피동표지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給’의 피동표지화는 사역표지와 수혜표지와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給’가 사역표지로 쓰일 때 피동표지와 마찬가지로 NP1-給-NP2-VP의 구조를 가지고, NP2는 모두 행위자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給’뒤의 NP2가 동작 행위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기에 사역동사와 수혜표지 그리고 피동표지와 의미적 관련성이 깊다. 이런 통사적 의미적 구조의 유사성은 ‘給’의 피동표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1) 就是天，也是給氣運使喚著，定數所管，天也無從爲力。(《兒女英雄傳·第3回》)

(비록 하나님일지라고 운에 의해 지배를 받고, 운수에 영향을 받으니,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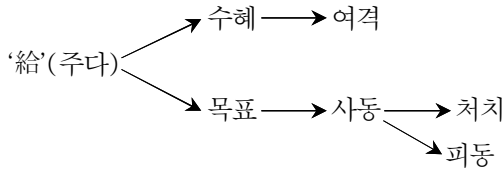
(22) 我不想你這等怕死貪生，甘心卑汗苟賤，給那惡僧支使。(《兒女英雄傳·第7回》)

(나는 너처럼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자 하며 비천함을 가까이 하여 저 나쁜 중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예문(21)의 ‘氣運’은 비록 무정 명사이지만 사건을 발생시키는 동인에 해당되며 넓은 의미에서 행위자에 해당된다. 예문(22)에서 ‘惡僧’은 동작행

위의 수혜를 입는 자인 동시에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자의 의미가 드러난다. 즉 부림을 당하는 행위는 惡僧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수혜를 입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使喚, 支使’의 행위는 모두 NP2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NP2가 행위자 의미와 수혜자 의미를 가지면서 사건발생의 동인이 되는 피동행위를 일으키는 주체가 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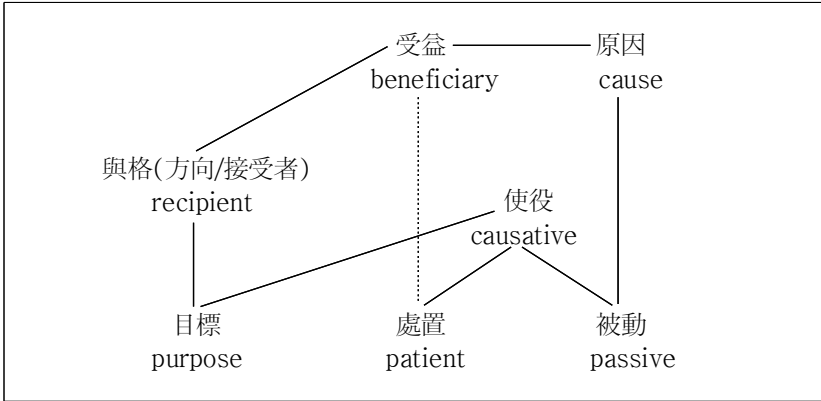
앞서 논의한 ‘給’의 문법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給’의 의미 지도 모형

의미 지도 모형(Semantic Map Model)은 근래에 언어유형학과 인지언어학에서 광범하게 사용하는 의미 분석 방법으로 다중 기능을 갖는 어법표지의 의미상 상관관계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여러 언어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법표지들의 발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 ‘給’의 문법화 과정은 단선적인 의미 발전 과정이 아니라 방사선적인 발전과정을 보이므로 서로 다른 기능 표지들 간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¹²⁾

11) 예를 들어 ‘蘋果給孩子吃了’같은 문장은 명확한 화용적 맥락이 없으면 수혜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사과가 아이에게 먹혔다’처럼 피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혹은 아이에게 주어서 먹게 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주다’의 의미와 사동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張敏(2008)은 중국어 방언의 被動, 處置, 工具, 與格 등 표기들의 의미지도 모형을 다른 나라 언어들의 예들과 함께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의미 지도 모형을 조금 수정하여 ‘給’의 문법화에 적용해보았다.



< ‘給’의 의미 지도 모형 >

먼저 ‘給’의 ‘주다’의미는 수혜와 혜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수혜 행위를 받는 접수자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수혜나 혜택의 방향성이 강조되면 여격의미가 생성된다. 이는 문법화에서 의미 일반화(generalization)나 의미 약화(semantic fading)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주다’의미는 방향과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동작이나 방식이 부가되면서 목표 의미가 추가된다. 목표표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 다른 행위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다시 사동과의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다. 이들은 사건의 미 발생을 전제로 하여 어떤 사건의 발생을 도모한다.

사동은 여러 의미 변환관계의 중심이 된다. 處置표지는 사역의미에서 NP2의 행위성 혹은 통제성은 약화되는 반면 영향성이 증대되어 나타나고, 피동용법의 NP2는 사건 발생의 원인자(cause)라는 측면에서 사역동사의 NP2와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IV. 인접 방언과의 비교

Heine & Kuteva(2004)에 따르면 세계 여러 언어에서 ‘주다’동사의 문법화는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 때문에 이를 중국어 ‘給’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주다’동사의 문법화 과정과 비교 연구하는 것은 문법화 가설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남방의 인접 방언들에서도 ‘주다’동사의 다중 문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몇몇 학자들이 중국 북방 지역에서 ‘給’의 피동표지화는 남방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Hilary chapell & Alain peyraube(2006)는 閩南語에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연구하면서 ‘乞’는 ‘주다’의미를 갖는 동사이면서 여격표지, 사역동사, 피동표지로 쓰임을 밝히고, ‘乞’는 ‘주다’동사(V-乞-NP-NP)에서 여격표지(V-NP-乞-NP)로 변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다’동사(V-乞-NP-NP)에서 사역동사(NP-乞-NP-VP), 다시 피동표지(NP-乞-NP-VP)의 두 갈래로 발전되었음을 주장하였다.

Andy C. Chin(2011)은 廣東語의 ‘畀’가 여격표지, 수혜 표지, 사역 동사, 도구 표지 그리고 피동 표지로 쓰이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畀’역시 두 갈래의 문법화 연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먼저 ‘주다’동사>수혜표지>여격표지로 변화되었다. 수혜 표지와 여격 표지는 모두 V-NP-畀-NP 구조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한편 ‘주다’동사는 사역동사로 변화되고 다시 피동표지로 변화된다. 사동과 피동은 모두 ‘NP-畀-NP-VP’구조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역표지와 피동표지는 서로 연결된다. 이밖에 畀-NP(사물)-VP는 도구표지로도 쓰인다. 사물을 나타내는 도구 역시 사건의 발생을 일으키는 동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역 동사와 연결된다. 그리고 문헌자료의 조사를 통해 ‘주다’동사>사역동사>도구표지>피동표지로 문법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Huei-ling lai(2001)는 客家방언 hakka의 ‘주다’의미 동사 ‘bun’의 다중

문법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hakka방언에서 ‘bun’이 여격표지로 그리고 다시 목표 표지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hakka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먼저 도달점의 강조를 위해서 간접목적어 앞에 ‘bun’을 사용하고 유추에 의해 앞의 ‘bun’대신에 다른 ‘주다’동사가 출현하면 뒤의 ‘bun’은 여격표지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동사성 성분이 출현하면서 목표 표지로 변환된다. 다른 하나의 문법화 경로는 ‘주다’동사>사역·허용동사>피동표지로 이어지는 문법화 연쇄를 형성하는데 이는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직접 목적어가 동사성 성분이 되면서 NP-bun-NP-VP의 사역 구조로 변화되고, 피동구조는 사역구조와 동일함으로 인해 생성되었다.

위의 남방방언의 ‘주다’동사의 문법화과정을 살펴보면 만다린 ‘給’과 매우 유사한 문법화 경로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閩南語나 廣東語, 客家語의 ‘주다’동사는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또한 문법화의 방향성은 유사하나, 각 표지들의 선후 발전 관계는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방 중국어에서 ‘給’의 수혜표지는 술어동사 앞에 오고, 廣東語에서는 수혜 표지가 술어동사 뒤에 오는 등의 구조적 차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지금까지 ‘給’의 문법화 연구는 각 용법들의 유기적 관련성보다는 한둘 용법의 발전에 대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사동, 피동표지로의 변천에만 치중하여 ‘給’의 전체적인 문법화 경로를 살펴 보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給’의 여러 기능표지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는 明清시대의 《金瓶梅》, 《醒世因緣傳》, 《紅樓夢》, 《兒女英雄傳》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給’의 문법화 경로를 제시하였다.

‘給’는 단선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고 복선적인 구조를 띄며 다중 문법화를 형성한다. 그 중에서 수혜표지와 여격표지가 하나의 문법화 연쇄를 형성하고, 목표표지와 사역표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문법화 연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處置표지와 피동표지는 사역표지와 일정한 관련을 맺는다.

먼저 ‘주다’의미를 갖는 ‘給’는 수혜와 혜택의 의미를 가지며, 수혜를 받는 대상의 존재로 인해 도달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수혜표지에서 여격표지로 변화된다. 한편 방향성과 전달의 의미를 나타내는 ‘給’字 구문에 구체적인 동작이나 방식이 부가됨으로써 목표 의미가 생성된다. 목표 표지는 V-NP의 생략을 통해 NP-給-NP-V의 사동구조로 변화된다. 각각의 문법화과정에서 의미 약화(semantic fading)와 재분석(reanalysis)의 기제가 작용되었다. 處置표지는 NP의 영향성의 측면에서 사역 의미와 관련을 가지며, 피동표지는 NP가 사건 발생의 행위자라는 점 때문에 사역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사역표지는 處置표지와 피동표지의 생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의미 지도 모형의 구축과 중국내 인접 방언과의 ‘주다’동사의 문법화과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給’의 문법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주다’동사 문법화 경로에 대한 가설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박미정, <현대중국어 사동법의 의미에 대하여: ‘給’를 중심으로>, 《중국어학의 주제탐구》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박향란, <‘給’字 사동문의 기원과 의미>, 《中國語文學》, 57집 2011a.
- 박향란, <處置표지 ‘給’의 來源>, 《中國語文學》58집, 2011b.
- 찰스 N. 리, 샌드라 A. 톰슨, 《표준중국어문법》 백은희, 박정구, 박종한 옮김, 2007.

- 洪波·趙茗, <漢語給與動詞的使役化及使役動詞的被動介詞化>, 《語法化與語法研究二》, 商務印書館, 2005.
- 蔣紹愚, <“給”字句, “叫”字句表被動的來源>, 《語言學論叢》第26集, 2002.
- 李 焯, <清中葉以來使役“給”的曆時考察與分析>, 《中山大學學報》第3期, 2002.
- 李 焯, 《<醒世姻緣傳>及明清句法結構曆時演變的定量研究》, 百花洲文藝出版社, 2006.
- 石毓智, 《語法化的動因與機制》, 北京大學出版社, 2006.
- _____, <兼表被動與處置的“給”的語法化>, 《世界漢語教學》第3期, 2004.
- 王 建, <給字句表處置的來源>, 《語文研究》第4期, 2004.
- 徐 丹, <北京話中的語法標記詞“給”>, 《方言》第1期, 1992.
- 張惠英, <說“給”和“乞”>, 《中國語文》第5期, 1989.
- 張 敏, <空間地圖與語義地圖上的「常」與「變」: 以漢語被動、使役、處置、工具、受益者等關係標記為例>(打印稿), 2008.
- 志村良治, 《中國中世語法史研究》, 中華書局, 1995.
- Andy C. Chin, grammaticalization of the cantonese double object verb [pei35] 界 in typological and areal perspectives, language and linguistics 12.3: 529–563, 2011.
- Cheng lisa, James huang, hoo, hoo, hoo: syntax of the causative, dative and passive construction in taiwanese. contemporary studies on the min dialects, 146–203, 1999.
- Chu-ren Huang and Kathleen Ahrens, the function and cateregory of gei in mandarin ditransitive construction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7.2: 1–26, 1999.
- Craig, ways to go in rama: a case study in polygra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n traugott and heine(eds). approaches to gramaticalization: 455–492, 1991.
- Heine & kuteba,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Hilary Chappell & Alain Peyraube, the analytic causative of language
early modern southern min in diachronic perspective, *linguistic
studies in chinese and neighboring languages*, 973–1011, 2006.

Huei–ling lai, on hakka bun: a case of polygrammaticaliz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37–153, 2001.

K.thephanjana, S.uehara, the verb of giving in thai and mandarin chinese
as case of polysemy: a comparative study, *language sciences*,
621–651, 2008.

Newman, John,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andarin *gei*,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1.2: 313–336, 1993.

Xu Dan, the status of marker *gei*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2.2: 363–394, 1994.

<引用文獻>

《祖堂集》 靜 筠二禪師, 中華書局, 2007.

《朱子語類》 黎靖德, 中華書局 1986.

《金瓶梅》 笑笑生, 人民文學出版社, 2000.

《醒世姻緣傳》 西周生 武彰點校, 中華書局 2002.

《紅樓夢》 曹雪芹, 人民大學出版社, 1982.

《兒女英雄傳》 文康, 吉林文史出版社, 1995.

<中文提要>

本文探討漢語雙賓動詞“給”的多種語法化：(1)受惠標志；(2)與格標志；
(3)目標標志；(4)使役標志；(5)處置標志；(6)被動標志。本文通過考察明清
時期北方材料，構擬這六種語法功能的發展過程。本文認為，受惠標志跟與

格標志經歷了一個發展過程；目標標志跟使役標志也經歷了另一個發展過程。而處置標志與被動標志都是從使役動詞語法化產生的結果。此外，把這種語法化的過程體現語義地圖模型。最後，這些語法化過程跟中國南方方言比較，指出授予動詞的語法化經歷了類似的演變機制。

주제어 : 給, 多種虛化, 語義地圖, 方言比較

